

##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웃는 해치'상 설치

기사입력 2014/12/20 02:06 송고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자리 잡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Peace Palace)에 우리나라 전통 조각품 '웃는 해치'가 설치됐다.

한국 정부와 평화궁 소유주인 카네기재단은 19일(현지시간) 평화궁에서 해치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ICJ와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위치한 평화궁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기증한 예술품이 전시돼 있으나 한국 작품이 비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기증된 해치는 평화궁 1층 중앙홀에서 ICJ 법정으로 가는 방향의 첫 창문 앞에 설치돼, 평화궁 방문객은 물론 ICJ 법정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다고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이 소개했다.

기증식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07년 전 이준 열사가 일본의 병합 시도를 알리고자 헤이그를 방문하였던 역사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러한 약속의 상징으로서 해치상을 기증한다"고 말했다.

페테르 톱카 ICJ 소장은 축사에서 "이준 열사가 3개월의 여행 끝에 헤이그에 도착했으나 만국평화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한국은 이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ICTY) 재판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법 관련 주요 인물을 배출하며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최종현 주네덜란드대사 등 우리 정부 측 관계자와 톱카 ICJ 소장, 송상현 ICC 소장, 권오곤 ICTY 재판관, 카네기재단 이사장, 네덜란드 상원 부의장, 해치 작품을 만든 최진호 조각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옹고 그림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져온 상상의 동물 해치는 조선시대 사헌부 상징으로 쓰였다.

sungjin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20 02:0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